

# 인삼 · 약초 과학기술 개발 중장기 발전 방안

임 상 종

인삼약초연구소장 · 농촌진흥청 · 작물과학원

그동안 국내에서 인삼연구는 KT&G에서 주관하여 수행하여 오다가 1996년 인삼산업법 개정으로 인삼 관련 정책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었으며 2001년 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해산되고 2002년 완전히 민영화됨에 따라 인삼산업법에 의거 인삼연구기능은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기술 분야별로 분석하고 우리 청에서의 인삼 연구 착수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삼연구기능 수임을 위해 착실히 준비를 통하여 2004년 1월 행정부의 승인을 얻어 농림부령 제1454호에 의거 마침내 우리청 작물과학원에 정원 26명의 인삼약초과가 신설되었으나 현 인원과 조직으로는 국제경쟁력 향상 및 국내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실감하고 연구기능 및 조직 확대, 시설기반 및 예산 확충을 위한 연차별투자계획을 마련하는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시험포장 48ha와 국유림 64ha를 확보하고 2007년 7월 연구동 준공과 함께 마침내 2개의 전문 연구과와 행정과로 구성된 정원 35명의 인삼약초연구소가 신설되었다.

연구소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됨으로써 인삼과 약용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생산성 향상기술, 기능성 신소재 탐색 및 관련 산업 기술수요 충족과 농가현장 애로기술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긴급과제와 중장기연구과제로 구분 수행하여 고려인삼의 과거명성과 그 우수성을 되찾고 약용작물의 고품질 고부가가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삼약초 산업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삼약초산업의 규모는 현재 국내 6만여 농가와 1조 3천억원의 생산수준과 3조원 대에 육박하는 천연물건강기능성 식품산업으로 큰 시장을 가진 산업이며 웰빙과 로하스 트렌드에 따라 더욱 부가가치가 커질 것이 확실시 되는 작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인삼과 약초를 연구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국내 인삼약초경작농가 및 관련 산업의 기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전과 임무를 가지고 그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관련 단체 및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 차례의 초청 토론회를 거쳐 검토되고 준비된 인삼과 약용작물에 대한 중장기연구계획을 소개하고자 합니다.